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몽상을 통한 자기치유의
회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한혜민

몽상을 통한 자기치유의
회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임 상 빈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한혜민

인 준 서

한혜민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들 중 2014년 3월에 있었던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본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과 표현형식을 연구하고 서술하였다.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와 상업 자본주의는 급격한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초래했다. 이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과 건조함에 회의를 느끼고 몸서리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친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수많은 외부적 자극과 살면서 겪게 되는 다사다난한 문제들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불안, 소외, 허무함으로 느껴지는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감정들은 각자에게 스스로 풀어야 하는 개인의 숙제로 남겨져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곤 한다. 나 또한 몇몇 외부의 자극들에 의해 크나큰 감정의 불균형을 경험했으며, 이는 불안과 불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이어졌다. 본인은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홀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본인이 찾은 해결책은 새로움과 다름을 상상하는 ‘몽상’의 행위였다.

예술가는 자신이 속해있는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내적 자아를 탐구하여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외적 존재에 대한 묘사가 아닌 인간의 내적 삶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본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내적 자아에 집중하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불안과 소외, 허무함의 감정이 야기되는 원인을 사회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며, 몽상을 통한 예술행위가 내적 치유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관심사와 작업과정은 미술치료의 관점으로 설명하였고, 조형 구성 방식은 물감의 물성과 색,

리듬감, 대상의 왜곡과 축소, 비움과 채움의 형상 순으로 상세히 분석, 기술하였다.

결국 본 논문은 현시대를 살아가며 사회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감정을 몽상을 통한 창작 과정을 통해 본인만의 조형언어로 풀어나가는 치유에 관한 연구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아닐까. 본인은 본 논문을 통해 예술을 통한 자기 발견과 치유가 가지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감정의 곁을 여행하며 동시에 주변을 살피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었다. 각자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을 나도 모르게 어루만지고 가끔씩 서로 바라보고 대화하고 싶다.

목 차

논 문 개 요

작 품 목 차

도 판 목 차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현대사회와 개인의 존재가치	3
2) 대인관계의 불안과 상처	5
3) 몽상을 통한 치유와 회복	8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치유의 색	12
2) 물성과 리듬감	15
3) 비움과 채움	18
3. 작품 분석	20
III. 결 론	40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그 안에서 acrylic on canvas, 162x130cm, 2014
- [작품 2] 그 안에서 2 acrylic on canvas, 130x162cm, 2014
- [작품 3] 그 앞에 서서 acrylic on canvas, 145x112cm, 2014
- [작품 4] 그 곳에서 acrylic on canvas, 91x116cm, 2013
- [작품 5] 주변에서 acrylic on canvas, 116x91cm, 2013
- [작품 6] 주변에서 2 acrylic on canvas, 116x91cm, 2013
- [작품 7] 주변에서 3 acrylic on canvas, 91x116cm, 2013
- [작품 8] 홀로 acrylic on canvas, 45.5x53cm, 2014
- [작품 9] 가는 길 acrylic on canvas, 37.9x45.5cm, 2014
- [작품 10] 집으로 acrylic on canvas, 33x53cm, 2014
- [작품 11] 언제나 보라 acrylic on canvas, 53x45.5cm, 2014

도 판 목 차

[도판 1] 뭉크(Edvard Munch), 아픈 아이, The Sick Child,
oil on canvas, 120x119cm, 1885~1886

[도판 2]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Light of Iris,
oil on canvas, 91.4x75.9cm, 1924

[도판 3]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현명한 해리,
oil on canvas, 27.5x22cm, 1956

[도판 4] 장 뒤뷔페(Jean Dubuffet), 금반지, La bague d'or,
oil on canvas, 100x81cm, 1958

I. 서 론

내 언제면 혼자, 친구도 없이, 기쁨과 슬픔도 없이, 오직 만사가
꿈이라는 신성한 확신 하나에만 의지한 채 고독에 들 수 있을까?
언제면 욕망을 털고 누더기 하나만으로 산속에 묻힐 수 있을까?
언제면 내 육신은 단지 병이며 최악이며 늡음이며 죽음이란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숲으로 은거할 수 있을까. 언제면, 오, 언제면...?)¹⁾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변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 안에서
우리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들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다니는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불안해한다. 주위 잘 나
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한숨을 가득 쉬며 살이 찌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난리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며 사느라 하루하루가 피곤
하다. 타인의 잣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
며 고독하다. 이 사회에서 혼자라는 감정보다는 상대적 감정도 끌어안고 살
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안은 더욱더 증폭되고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과
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우리는 오히려 소외되는
기분이고 가벼워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과 허무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렇듯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겪었을 소외, 불안, 허무한 감
정들을 본인이 직접 느끼고 인식하면서부터 본인의 작업은 시작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외부 감정은 내면의 메말라 버린 감성들과
함께 본인을 괴롭혔으며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된 하루를 위로받
기 위하여 자신만의 도피처를 만들어 냈다. 도피처는 본인이 보호받고 안정
을 느낄 수 있는 몽상의 행위로 이어지며 동시에 창작행위로 나타난다.

본인은 작품 형성 과정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을 마

1) Nikos Kazantzakis,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9, p.39

주하면서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기억과 감정들을 재발견하고 자아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

예술가의 창조 과정은 자기 자아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통해 숨어있던 자아와 만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하여 표현해 내 듯 본인 또한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외부의 상처를 승화시켜 캔버스 안에서 제시하며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내적 감정들을 창작 과정을 통해 치유하는 과정과 심리 변화를 본인의 독자적인 표현 방법으로 구축하며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론의 제 1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점들을 통해 발생하는 감정들을 짚어보고 타인에게 받은 상처와 외부적 감정들을 서술한다. 그러한 감정이 내적 세계와 함께 충돌되는 원인을 유년시절에서 찾아보고 몽상을 통한 창작행위로 치유받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형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제 2장에서는 본인의 대표되는 작업 방식을 색과 물감의 질감, 형태를 통해 분류하여 서술하고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제 3장에서는 진행된 본인의 작품의 의미를 자세히 분석하고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의 몰입을 통한 치유 과정을 되짚어 보며 변화된 심리상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람자에게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흔적을 스스로 묻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본인에게는 앞으로의 작업이 성숙한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현대사회와 개인의 존재가치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은 원하면 쉽게 얻어지는 정보들과 지식들을 공유하게 하고 가상공간 안에서의 소통으로 이제 전 세계 사람들과의 관계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고도의 산업과 기술발전은 이전에는 없었던 현대인의 삶을 윤택해지고 편리하게 하며 풍족하게 만들었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거대해질수록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사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더 빠른 일처리와 그에 따른 행동을 원한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기술발전은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지만 현대인들은 세속적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으며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개인주의와 타인과의 경쟁구도로 여러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가볍고 양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다. 타인은 소통이라는 이름하에 깊은 유대감 없이 서로 간의 이해가 배제된 채 관계 맺기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상세계의 많은 친구들과 폭넓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낯선 이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클릭 한 번만으로 타인이 되기도 한다.

대량으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과 각종 이미지들 사이에서 진위와 상관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본질에 대한 고민은 잊은 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하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그런 우리를 더욱더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사회 환경은 낯선 이질감으로 다가온다.

개인의 사생활은 쉽게 공유되고 침해받으며 한 생명의 자살 소식은 이제 별다른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가족 간의 대화는 끊긴지 오래다. 학교 안에서의 집단 왕따는 학창시절의 의례 있는 일처럼 치부되고 날이 갈수록 흉측해지는 범죄로 인해 하루하루가 믿기 힘든 세상의 연속이다.

이렇듯 현대사회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 반면, 발생하는 문제들은 개인을 더 큰 상실감과 고립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조직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가치 또한 미약해져 결국 개인 존재에 대한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졌다. 현대에 만연한 불안과 소외로 인한 정치, 경제적 위기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초래된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기인하는 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²⁾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쌓여진 감정들은 현대인들에게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로 자리 잡혀있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 아놀드(Matthew Arnold, 1822-1888)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사회는 그 가치 기준이 높아졌지만, 인생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³⁾ 이미 현대인의 인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설계해 나가는 것이 아닌 사회시스템의 요구에 맞추어 개인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이처럼 외부 세계의 혼란과 사회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방황했던 본인에게 삶에 대한 방향과 스스로 내면 자아에 대한 물음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창작 욕구에 대한 동기가 되어 본인이 할 수 있는 예술로 전환하여 승화시키고자 하며 문제점들을 되

2)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p.41 : 문미원, 『현대미술을 통한 불안심리표현의 조형성연구-표현주의 회화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2007), p.53 재인용

3)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p.7

4)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5, p.55

깊어 보며 사회와의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물음을 통해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2) 대인관계의 불안과 상처

우리의 삶은 타인과 끊임없는 관계의 연속 안에서 자신을 만들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감정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자, 인간 불행의 중요한 근원이기도 하다.⁵⁾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형제 관계, 사제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고객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 등으로 나와 타인과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 대인관계 형성 능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⁶⁾ 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며 자기 존중감을 높여 주고 즐거움 안에서 불안과 소외 극복 등 많은 이로움을 준다.⁷⁾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우리는 불안, 고독, 외로움을 느끼며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듯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이해와 갈등을 거치며 자아를 형성하고 하나의 삶을 구축해 나간다. 집단과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소재는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본인만의 조형언어 구축의 토대가 된다.

본인은 낯선 타인과 마주할 때 마음 한편에 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버릇이 있다. 정말일까.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 걸까. 타인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하며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마주하고 사회를 불신한다. 세상은 사회 각계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져 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사회를 초래하며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조차 믿을 수 없는 세상이

5) Jon Allen, 『트라우마의 치유』, 학지사, 2010, p.185

6) 이위환·김용주, 『현대사회와 인간관계론』, 공동체, 2009, p.5

7) 최승희·김수옥,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박영사, 2013, p.59

되었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본인이 외부 세계에서 느끼는 형태로 내재되어 있는 감정과 함께 그 모습을 더한다.

어느새 자리 잡힌 불신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벽을 치며 신뢰감 없이 사람을 만나게 했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 초기 구강기와 관련이 있다고 미국 정신분석가 에릭슨(Erik Homberger Erikson, 1902-1994)은 주장한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학적 성격 이론의 비교 분석에서 엄마의 수유와 양육방식이 안정적이면 아기의 내재된 불안감이 잘 다스려져 외부환경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신감은 엄마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느끼는 아기 내면의 불안감이 적절히 소화되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인의 불신감은 타인이 나와는 다른 존재로 자신보다 우위에 있을 거라는 완벽한 이미지로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완벽한 존재의 타인은 본인에게 실망과 상처 주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크 라캉(Jacques Marie Emile Lacan, 1901-1981)은 이것을 거울 단계이론으로 설명하며 이론을 통해 인간은 언제나 타자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을 발견하려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내재된 불완전함의 상처와 불안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울 속 세계를 통해 자아를 찾고자 하며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상의 주체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소유하였다고 믿는 과정이다.

본인은 자신에 대한 자아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발견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저지르는 사소하고도 일반적인 작은 실수와 잘못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싶되 상처를 끌어안을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의 가족 관계가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이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설리반(Harry Stack Sullivan, 1892-1949)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이미지는 특정 사람을 통해 일관되게 지각적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성된 이미지로 개인은 그 대상에게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아버지를 권위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모든 대상들을 비슷하게 지각하여 그들 모두를 대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⁸⁾

본인은 아버지와 타인의 존재를 동일시하며 타인에게 높은 기대감을 부여한다. 부여한 기대감은 차례로 어긋남에 따라 믿음과 신뢰가 쉽사리 무너져 버리곤 했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유년시절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장기 해외출장으로 인한 오랜 시간 아버지의 자리 비움은 본인에게 있어서 늘 고정된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허무함, 체념으로 바뀌어 갔다. 아버지의 부재는 본인에게 불안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랐고 이러한 심리적 감정은 자연히 늘 그대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자연에서 위안을 얻곤 했다.

졸업 후 몇 년 간 겪었던 직장생활 안에서의 새로운 타인과의 관계 형성 또한 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이전에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으로 형성되었던 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로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우선으로 맺어지는 관계였다. 생존을 위해 맺어진 직장 안에서의 관계는 돈이라는 자본에 치우쳐 정의와 정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지위와 계급으로 나뉘져 수직적 관계로 냉정함과 치열한 경쟁 사회의 한 면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기에만 바빴다. 이러한 사회집단은 규칙의 일관성과 역할 분화를 강조하고 위계적인 조직 구성 속에서 개인을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며 한낱 부품에 지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⁹⁾

본인은 타인과의 진솔한 관계를 바랐지만 그 자리엔 공허함과 상처만이

8) 고영건·김진영, 『그림으로 이해하는 심리학』, 개마고원, 2013, p.53

9) 이위환·김용주, 『현대사회와 인간관계론』, 공동체, 2009, p.44

남았다. 그 속에서 본인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과 대인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어느새 자신도 타인과의 소통을 그저 가벼운 관계 이어가기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듯 본인은 자연스레 사람을 대할 때 점차 믿음과 신뢰보다는 의심이 먼저 자리 잡히게 되었고 타인 또한 본인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에 본인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존재들로부터 본인의 존재와 가치를 끊임없이 묻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본인과 타인의 서로 다른 존재가 부딪히며 발생한 감정들은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며 피하거나 외면했고 좋고 싫은 정확한 의견 대신 상황에 맞게 대응 표현하거나 다른 한 곳에 숨기기에 바빴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본인의 내재된 불안과 불신감은 치유받고자 하며 작품 활동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작품을 통해 혼란스러운 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과 위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며 진실된 표현으로 내면에서 야기되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한다.

3) 몽상을 통한 치유와 회복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몽상¹⁰⁾에 빠지는 경험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낯설고 새로운 장소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본인은 현실과 비현실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상상하며 멍하니 몽상에 잠긴다.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이나 어린 시절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서 있는 모습, 하늘을 나는 상상 등 몰입의 순간을 즐기며 편안해진다. 현실보다는 몽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고 확장하며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몽상은 상상력의 주된 활동 무대이며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

10) 깨어있으면서 꾸는 꿈, Day Dream, 즉 낮에 꾸는 꿈.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슬라르』, 살림출판사, 2005, p.43 참조

는 인간의 독특한 정신활동이라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는 말한다.¹¹⁾ 꿈의 무의식 상태와 사색의 명료한 집중 상태의 중간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몽상은 밤에 꿈을 꾸는 주체와는 달리 자신이 자아의 주체로서 몽상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¹²⁾ 몽상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의지와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꿈 꿀 수 있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감성은 현실과 꿈의 세계를 연결하며 인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예술가 또한 몽상을 통해 자아를 만나게 되며 본인만의 독특한 표현을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본인에게 있어 몽상은 복잡하고 우울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내면 깊숙한 곳의 심상은 몽상을 통해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현실은 본인에게 늘 다른 세계를 꿈꾸게 만들었다.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한 괴리감과 순탄치 않은 인간관계는 현실 세계를 더욱 등지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몽상의 시작이 되었다.

본인은 몽상에 빠지기 위한 도구로 사진을 이용한다. 사진은 본인에게 상상과 기대의 결과물로 노출과 조리개에 대한 지식 없이 수동 카메라로 찍었던 경험이 지금의 카메라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져 있다. 과다한 빛과 초점이 맞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디지털카메라의 인위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보다는 본인이 조종하여 만들어낸 예측할 수 없는 세계와 32롤 필름의 기다림이 좋았다. 만약 디지털카메라 사용이 이어졌더라면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수정하고 편집하는 일을 손쉽게 거쳐 화려한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미묘한 감정, 우연의 특성과 여운은 쉽게 지나쳤을 것이다.

대중매체의 사진에 대한 관심은 본인이 '다른 장소'를 상상할 수 있는 소재로 현실의 복잡함을 잊게 해 주는 위로의 한 장면과 같다. 자연과 일상적

11)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출판사, 2005, p.43

12) 위와 같음, p.44 참조

인 풍경의 이미지에 본인의 상상이 더해져 다른 세계를 꿈꾸는 일은 본인에게 늘 여행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익숙한 장소라고 해도 사진으로 접하는 풍경은 본인에게 더욱 낯설게 느껴지며 현재 처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인식하여 타인과의 소통 안에서 생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진 속으로 도망친다.

미니어처에 대한 관심 역시 몽상을 통한 자기 치유의 도구로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손으로 만들어 내는 작은 세계에 매료되었다. 장식적인 표현보다는 솔직함이 그대로 결과물로 보여주며 손으로 만드는 행위가 캔버스 안에서는 물감의 표현으로 이어져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 과정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도구로 진정한 내적 자아의 만남은 몽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술에 대한 창작행위로 이어져 본인 스스로를 치유한다.

미술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인간의 문화적, 사회적, 인격적 발달과정과 함께 발전하며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욕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적 활동은 인간 개인이 처한 삶의 어려움을 표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즉 삶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키우는데 기여하며 자아를 동일시하기도 한다.¹³⁾

본인이 작업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미술 활동을 통해 감성과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감정의 이완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미술치료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예술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삶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미적 활동이 치료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창작자임과 동시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⁴⁾

융(Carl Gustav Jung, 1875-1961) 또한 인간의 내면적 상징과 꿈을 통해 일상적 의식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성장 의지의 존재를 인

13)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2003, p.13

14) 위와 같음, p.62

식하며 스스로 체험한 그림이 주는 치유력을 증명하려 하였다. 요셉 보이스 (Joseph Beuys, 1921-1986) 역시 ‘예술은 바로 치료이다’라고 말하며 예술과 치료와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그 둘의 연계성을 강조한다.¹⁵⁾ 이와 같이 본인은 몽상을 통한 작업 행위로 내면의 심리가 균형을 찾으며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미술치료가 인간의 심리적 고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 성장 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 경험과 자기 본성 회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⁶⁾

작업을 통한 심리적 자기 치유는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작업세계에서도 나타난다. [도판 1]¹⁷⁾ 뭉크는 인간 내면의 숨어있는 불안한 감정을 추상적인 언어로 형상화하며 작품들을 통해 자신만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 뭉크에게 그림은 자아 해방의 행위이다.

“나의 예술은 일종의 자기 고백이었고....내게 삶의 불안과 병이 없었다면 나는 노 없이 나아가는 배였을 것이다.”¹⁸⁾

그는 그림 속에서 일찍 죽은 누이의 모습을 보여 주려 했고 병마와 싸우는 연약한 소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과 떠나보내는 이의 죄책감 등을 나타내려 했다. 그는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이 아닌 자기가 보았던 대상’을 그렸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장면을 가장 극단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려고 시도했다.¹⁹⁾ 어린 시절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삶으로 나타난 감정과 내면의 불안을 회화를 통해 환기시키며 자신 스스로를 승화시킨 셈이다. 이처럼 뭉크는 예술 생산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병과 불안, 외로움

15) 위와 같음, p.62 참조

16) 최은영·공마리아, 『미술심리치료』, 학지사, 2008, p.9

17) p.43 참조

18) Matthias Arnold, 『뭉크』, 한길사, 1997, p.9

19) 조이한, 『위험한 그림의 미술사』, 웅진닷컴, 2002, p.187

등을 자기 탐구와 자기 기술로 치유하며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²⁰⁾

이렇게 인간은 예술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펼치며 동시에 자신을 되돌아본다. 인간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한 작업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일이다.²¹⁾ 작업의 형태를 통해 세계를 구축하고 해소하며 몰입의 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예술가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 또한 두려움과 불안이 주는 감정의 불균형을 몽상을 통한 창작행위로 인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을 탐구하였다. 물감의 물성으로 표현되는 감정과 형태의 왜곡, 변형의 작업은 내면의 묵혀있는 감정의 해소와 해방으로 해석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발생하는 외부적 세계의 문제들과 감정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길 제시한다. 본인의 진정한 내적 울림을 통한 작업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내면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며 본인이 치유받았던 작업의 결과물이 다시금 관람자들에게는 위로의 이미지로 다가가고자 한다.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1) 치유의 색

색채는 작가가 주관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조형언어 중 하나이다. 색은 캔버스 안에서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작가의 감

20) Matthias Arnold, 『몽크』, 한길사, 1997, p.14

21) 김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문화사, 2006, p.62

정을 담아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정서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우연의 결과가 아닌 기억과 경험으로 쌓여진 색의 감정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바깥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 전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²²⁾

각각의 색채는 홀로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또한 색채들의 결합으로 하모니를 이루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각 색채의 성격을 드러낸다.²³⁾ 대상에 대한 작가의 창조적이고 내재된 감각과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 색은 본인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인의 작업에서 물감은 캔버스 안에서 색들이 먼저 지나간 흔적 위에 쌓여진다. 물감을 푹 뜨는 행위와 함께 표면 위에 두껍게 발라지며 색의 레이어로 물감들을 층층이 쌓아올린다. 작업 초반 원색을 강조하고 붓의 터치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white를 기본 배경색으로 사용하였다. 붓이나 도구로 white 물감을 뜨고 원색을 순서대로 떼내며 캔버스 위에 쌓아간다. 쌓여진 물감들은 서로 엉키고 섞이며 붓의 방향과 함께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색의 혼합은 색의 에너지를 강조하며 캔버스 안에서 물감 스스로 그림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색의 섞임은 내적 울림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해 준다.

중첩되는 물감의 두께와 색들의 조화는 본인의 불안하고 허무한 심상으로 표현된다. 무겁고 불안한 심상들은 밝은 색채의 선택으로 나타나며 캔버스 안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형태와 분위기로 보인다. 선택된 밝은 색의 물감들은 화면 안에서는 그 감정을 숨기기라도 하듯 원색의 이미지로 나타나며 편안한 파스텔 톤의 깊숙함과 강렬한 원색이 때론 서로 대비되며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심상이 불안할수록 무겁고 두껍게 발려지는 물감의 두께로 안정을 찾고 드러내지 않았던 본인의 감정들은 색들의 섞임 뒤에 숨기며 허무함을 극복해 나간다.

22) Margarete Bruns, 『색의 수수께끼』, 세종연구원, 1999, p10

23) Guila Ballas, 『현대미술과 색채』, 궁리출판사, 2002, p270

본인은 캔버스 안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 여러 색을 선택 하여 지휘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다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 색은 이미지와 함께 개인적인 경험과 정서를 바탕으로 선택되고 캔버스 위에서 섞여지며 또 다른 색으로 만들어져 확장하고 하나가 된다.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파스텔 톤을 사용하며 그 위로 중첩되는 원색들은 예측하지 못한 형태를 만들어 내며 색의 깊이를 더해간다. 섞여진 색들은 파스텔과 원색 사이에 중간 톤이 되어 자연스럽게 중간 경계를 해결해나간다.

이러한 색의 역할은 본인의 작품에서 심리학적인 가치를 가지며 질료로서 뚜렷하게 나타난다.²⁴⁾ 본인은 sap green을 썼을 때 평온해지고 violet을 사용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자연의 편안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green의 사용은 자연으로부터 보호와 안정을 받기 위한 색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이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기 위한 연결고리로 violet과 magenta를 주된 색으로 사용한다. violet은 외향적 심리를 대표하는 red와 구심적 심리를 대표하는 blue가 혼합된 색이므로 활기와 억제 심리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갈등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슐러(Rose Haas Alschuler, 1887-1979)와 헤트윅(La Berta weiss Hattwick, 1909~)은 violet을 ‘침체된 우울한 기분이나 체험을 가진 불행한 아이’라 했고,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로샤(Hermann Rorschach, 1884-1922)는 ‘정서 불안을 가져오는 몸의 기능 저하’라고 보고했다. 반면 일본의 색채심리학자 스에나가 타미오(Tamio Suenaga, 194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violet은 치유의 색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숭고함과 신비스러움의 색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²⁵⁾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violet은 본인에게 외부로 받은 상처와 내부의 깊숙이 깔려있는 감정의 만남이 치유되는 과정으로 보여주며 그 효과를 극

24)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미술』, 일지사, 1990, p.73

25)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53

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 또한 갈등으로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lavender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치유했다. [도판 2]²⁶⁾ 말년을 문명의 변방인 뉴멕시코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다이내믹한 구릉과 나뭇가지들을 lavender로 보여줬던 오키프 역시 색을 통해 치유 받으며 회복해 나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본인의 작품에서 색채는 다채로운 색의 조화 뒤에 숨겨지는 본인의 심리를 violet과 green을 통해 다시 밖으로 꺼내어 색으로부터 치유 받고자 하는 내면의 심리로 볼 수 있다.

2) 물성과 리듬감

본인은 물감의 질퍽한 촉감과 무게감에 안정감을 느낀다. 작업에서 보이는 두꺼운 물감의 두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졌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으로 보이며 자신을 외부로부터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 물감의 무게감에 집중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에서 물감의 사용은 ‘칠한다’는 개념이 아닌 ‘만든다’ 개념에 가깝다. 캔버스 안에서 두꺼운 물감의 표현은 자신을 의미하는 하나의 조형물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빚고 다듬는 행위와 같고 본인만의 공간과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 쌓여진 물감은 대상과 본인의 심상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물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며 물감이 그대로 섞여지는 과정 속에서 창조적인 즐거움을 느낀다.

다양한 색들의 섞임과 붓의 터치는 같은 방향의 붓질로 인하여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장식적인 표현보다는 담백한 표현을 담고자 하며 내면의 심리 변화가 물감의 물성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 과정을 통

26) p.43 참조

27)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53

일감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 물감을 푼 캔버스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동감은 캔버스에 그대로 담으며 생명력을 부여한다.

물감의 두께는 보조제 Extra Heavy Gel²⁸⁾을 섞은 가장 짙은 농도의 물감으로 만들어 마치 아이스크림을 떠내듯 물감을 푼 행위로 이어져 질퍽한 물성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보조제가 섞여진 물감은 강한 점도로 깔끔하게 물감이 떠내어지며 캔버스 위에 물감을 얹어질 때의 묵직한 감정의 응어리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High Solid Gel²⁹⁾의 혼합으로 유화 느낌의 부드러운 질감도 함께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질감의 두께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터치의 다양한 표현을 위해 본인은 Extra Heavy Gel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하나의 붓을 가지고 여러 색을 차례로 담으며 세세한 묘사가 필요하기보다는 쌓여진 질감의 표현을 강조하는 작업으로 붓의 형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다양한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굳어진 붓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나무젓가락, 붓의 뒷부분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캔버스 안에서 색들의 대비와 물감의 질감 표현은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내적 심상에 대한 탐구와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내면의 감정이 섞여 대상의 표현에는 강조 대비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질감의 표현을 시도한다. 물감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쌓는 행위를 반복하며 그 안에서 물감이 뭉개지고 쌓아지며 흘러고 지운 자국으로 내면의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인은 질감을 강조하는 마띠에르(matière)기법으로 불안한 내부의 심리를 겉으로 분출해 내어 치유의 과정을 거친다.

28) Golden사의 아크릴 물감 보조제로 물감의 양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가장 높은 젤로 수축현상을 줄여주며 최고의 두께감을 표현할 수 있다. 흘러내리지 않으며 퍼지지 않는 설질로 인해 두꺼우면서 깊이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고품이며 콜라주 작업 시 다양한 종류의 재질을 붙일 때도 사용한다.

29) Golden사의 아크릴 물감 보조제로 붓질의 느낌을 더욱 유화물감과 같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며 나이프 작업을 하는 데에도 용이하다. 수축현상을 줄여주며 처음에 나타내고자 했던 두께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마띠에르는 예술작품의 물질적인 재료와 소재 등 일반적으로 표현된 대상 고유의 재질감을 가리키며 작품 표면의 울퉁불퉁한 질감 자체나 혹은 회화 기법, 필치, 물감에 따라 야기되는 화면의 표면 효과를 의미한다.³⁰⁾ 대표되는 작가로는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1898-1964)와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로 그들은 물감을 두껍게 발라 올리거나 화면을 거칠게 긁거나 파는 것으로 대상을 표현한다. [도판 3],³¹⁾ [도판 4]³²⁾ 포트리에에는 캔버스에 종이나 석고를 화면에 발랐으며, 뒤뷔페는 물감에 모래나 유리조각 같은 것을 섞어 두꺼운 질감을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안료는 매끈한 ‘시각적 환영’보다는 거친 ‘촉각적 질감’의 효과를 낸다.³³⁾ 이들은 물질성을 강조하며 예술을 습관적인 테크닉이 아닌 하나의 행위로 의식하며 마띠에르를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이와 같은 동향을 프랑스 평론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 1909-1987)가 형을 부정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앵포르멜(Informel)³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물감 자체가 단순히 형태와 색을 나타내는 데 머물지 않고 입체성까지 드러내는 효과를 강조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는 본인 작품은 감정을 표현하는 적절한 재료로 생각하며 붓의 터치감과 물성으로 더욱 극대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30) <http://monthlyart.com/>

31) p.44 참조

32) 위와 같음

33)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술이야기』, 경향신문, 2012

34)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회화운동으로 기하학적 추상의 이치적인 측면에 대응하여 서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反)추상적 주관주의로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논리적 합리성을 거부하고 즉흥적 조형성을 추구하는 예술가의 직관에 의해 제시되는 모든 자유조형 의지를 말한다. 프랑스의 평론가 M.타피에가 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앵포르멜(非定形)이라 했다. 구글검색 위키백과 참조

3) 비움과 채움

본인의 작업은 전체적인 대상이 색과 붓질의 흐름으로 인한 유기적 형태를 지닌다. 각자의 형들은 주변의 선과 색, 질감으로 어우러지며 물감과 붓질의 행위가 더해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으로 만들어진다. 형태의 경계를 허물어 가며 화면 안에서 다양한 구도와 객체를 추구하면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아닌 추상적인 회화 기법으로 모습을 그려낸다. 즉흥적인 붓의 터치와 우연적인 물감의 흘림으로 내면의 심리 변화를 은유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는 본인의 작품에서 대상의 사실적인 표현 방법이 아닌 변형하고 왜곡하여 캔버스에 구체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나타난다. 모티브가 되는 부분은 강조하고 생략하며 느끼는 그대로를 담고자 한다. 형상을 표현하는 과정은 감정과 기억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무의식 속에 내재돼 있던 감정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경험으로 축적된 기억은 예측할 수 없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감정을 극대화할수록 본래의 이미지에서 멀어지며 현실의 풍경은 절제된 색과 단조로운 형태로 표현한다.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순간에 담고 화면 안에서 붓질의 중첩과 물감의 두께,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들로 형상은 더욱 알아볼 수 없게 되면서 관람자에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이렇듯 본인의 작업에서 형상은 내적인 울림을 담고 있으며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는 이것을 형태는 내적인 내용의 외화(外化)로 보고 있다. 절대적으로 내적인 것은 본인 내부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 역시 내적인 내용을 갖는다는 의미이다.³⁵⁾

캔버스 안에서 대비되는 색들과 질감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형상은 서로

35) 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방, 2000, p.67

섞여있는 형태를 보임과 동시에 다른 객체의 모습으로 해체되어 끊겨있음이 나타난다. 이러한 형을 해체하는 작업은 형을 비우는 작업으로 이어져 한 화면을 가득 채우는 질감과 색들은 캔버스의 여백이 되어 비어있는 그 자체 만으로도 다른 형상으로 보인다. 화면을 두꺼운 물감으로 가득 메웠던 초반 작업과는 달리 질감과 색의 균형을 의식하며 형상을 비우는 작업은 다시금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채워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본인만의 예술적 창조 행위를 구축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화면의 ‘비움’은 동양철학에서 노장사상의 ‘빔’, ‘비움’으로 ‘마음을 비우다’의 철학적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며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조형 개념으로 여백(餘白)을 들 수 있다. 비움은 조형적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빈자리를 의미하며 더불어 형이상학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채움’으로 완성되는 서양의 조형 개념은 바탕과 형태를 중시하고 배경 자체를 형태 중심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며 비움을 채워야 하는 미완성으로 인식하였다. 서양의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없음과는 다른 동양화에서 나타나는 비움은 단순하게 무엇이 없는 차원이 아닌 언제든지 다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된 없음으로 보여 진다.³⁶⁾

본인의 작품에서 형상은 화면을 채워가는 행위임과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가는 비움의 행위이며 자신의 괴로운 내적 감정을 비워내고 해소하며 그 자리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감정을 채워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움과 채움의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그 속에 또 다른 가능성을 담고자 하며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처럼 본인의 형태 표현은 심리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즉흥적이고 무의식적인 붓의 터치를 강조하고 치유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본인의 작업세계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다.

36) 강소영·김도식, 『동·서양의 관점에서 본 비움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2014, p.6

3. 작품분석

‘쓸쓸한 몽상’이라는 타이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작업들 중 석사청구전에 전시한 작품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고독함과 불안한 감정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고 회화 작품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몽상을 통한 작업의 몰입은 치유 과정을 거치고 다시 어제가 반복되는 오늘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쓸쓸했던 본인의 모습을 담으며 작업은 시작된다.



[작품 1] 그 안에서, acrylic on canvas, 162x130cm, 2014

[작품 1]

이 작품은 반복되는 일상과 현실의 굴레에서 도망쳐 나와 숨어있는 본인을 표현하고자 한 작업이다. 그 당시 본인은 회사생활에서 느꼈던 인간에 대한 허무함과 실망감을 치유하고자 숲이라는 자연의 이미지에 안정을 찾았다. 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간질, 의심, 질투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낸 시간은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본인에게 현실은 늘 피하고만 싶은 세계였다. 현실에서 부딪치는 삶과 인간에 대한 무관심과 두려움, 공허함이 커갈수록 몽상하는 것 자체만이 본인의 위안이 되었다. 지금 현실의 공간이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공간에서 있는 나를 만들어 내며 안쓰러운 자신을 위로했다.

퇴근길 잡지 속 숲은 당시 본인이 보호받고 도망가고자 했던 장소로 적합해 보였다. 현실 앞에서 나약한 모습의 자신과 그 자신을 어딘가에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 그대로 사진의 이미지에 이입되어 순간적인 방법으로 그때의 감정을 담아 드로잉 후 차근차근 형상을 만든다. 형상들을 그리고 지우며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며 공간을 형성하고 현실을 잊기 위해 사실적인 표현이 아닌 변형과 해체를 거쳐 추상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숲의 호수는 현실이 아닌 이상적인 공간으로 하늘은 낮을 나타내고 호수의 공간은 어둠으로 그려낸다. 본인이 주변과 사회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으로 어둡고 차가운 푸른 계열로 표현하며 색의 대비로 긴장감을 주고자 한다. 또한 도피처였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갇혀 있는 본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호수 근처에 서 있는 인물은 본인을 의미하며 주변의 숲과 같은 유기적인 형태 표현으로 배경에 동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걸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한 면을 담고 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인물보다는 풍경이미지나 사람이 머물다간 흔적의 분위기를 담고자 한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현실에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변을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작품 2] 그 안에서 2, acrylic on canvas, 130x162cm, 2014

[작품 2]

바쁜 일상에 지쳐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본인의 뒷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본인은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으로 육체적, 심리적으로 지쳐있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며 그저 하루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생활이었다.

작품에서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지친 본인의 모습이 지푸라기를 움켜진 여인의 뒷모습에 감정 이입되며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을 담고자 한다. 본인에게 당시 삶이란 새로움의 발견보다는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숙제처럼 느껴졌다. 무의미해져버린 하루 일과를 잘 버텼다는 안도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인의 모습이 강인하면서 삶의 지속을 나타내는 듯 여인의 뒷모습에 투영되었다. 인물을 돋보이게 강조하며 질감과 붓의 서로 다른 터치로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도한다.

캔버스를 스쳐 지나가는 넓은 붓의 터치는 삶 속의 리듬감을 그려내고 magenta와 violet의 사용으로 불안하고 공허한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며 위로받고자 한다.

형상과 색채를 본래의 이미지에서 변형하며 걸모습 속에 내재된 현대인의 이중성을 표현하며 본인이 느꼈던 감성과 세계가 어우러지도록 더욱더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내고자 한다. 매일 같은 삶의 반복에서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작품 3] 그 앞에 서서, acrylic on canvas, 145x112cm, 2014

[작품 3]

[그 앞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연못 안의 물고기들을 통해 느낀 자유로움과 자연의 편안함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magenta와 green이 주를 이루고 전체적인 파스텔 톤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물감의 몽개짐과 흘리기 기법이 나타난다. 흐릿한 분위기는 그 장소를 꿈에서 경험하듯 정서적 체험을 하는 관람자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며 밝은 색채로 인하여 삶에 대한 움직임과 긍정적인 힘을 담고자 한다. 주변의 풍경과 함께 자신의 빛을 내면서 연못을 휘젓고 다니는 밝은 터치의 물고기 모습에서 자연에 대한 위안을 얻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작하였다.

평소 드러내지 않고 위축되었던 솔직한 감정들을 작업의 몰입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작업에서 violet을 중요하게 여겼다. 물고기와 연못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하늘과 구름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깊이감과 공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인은 몽상할 때 경계가 없는 자연 풍경을 한 공간 안에 담아 상상하기를 즐긴다. 직접 손으로 그 풍경을 꾸미고 상상을 통해 재정비하게 되면서 마치 손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거리를 어느 정도 예측하듯 캔버스 안에 담는다.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의도를 강조하고자 하며 자연을 통해 안정을 찾고 위안을 얻는 본인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4] 그 곳에서, acrylic on canvas, 91x116cm, 2013

[작품 4]

이 작업은 본인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에서 그 관계가 자주 깨지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며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을 사물과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작업하였다. 쉽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관계란 없으며 서로 간의 노력으로 형성되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이러한 본인의 내재된 감정이 색과 물감의 표현으로 치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캔버스 안에서 질감을 강조하며 화면에 감정을 채우고 담아내고자 하는 이 작품은 violet과 green을 주된 색으로 사용하며 대상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볼 수 있다. 본인이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기억과 심상을 담아 표현하며 사람이 머물다간 온기의 흔적과 쓸쓸함을 은유적으로 나타냈다. 사물과 자연이 가진 에너지를 질감을 통해 강조하면서 물감의 두께는 더욱 두꺼워지고 형태는 큰 덩어리를 이룬다.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흐름이 통일감 있게 흘러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각 객체의 표현은 서로 다른 붓의 터치로 대상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물감으로 뒤덮여있고 물감의 무게감 있는 표현으로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작품 3]과는 다르게 형태에 대한 여유와 비워내는 시도가 미약하던 시기의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다.



[작품 5] 주변에서, acrylic on canvas , 116x91cm, 2013

[작품 5]

이 작품은 평범한 놀이공원의 풍경을 에너지 넘치게 표현한 작업이다.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아닌 우울하고 차분한 사진 속의 놀이공원을 본인만의 조형언어로 그려낸 작품으로 하늘과 풍선의 모습을 물감의 묵직함과 질감의 큰 흐름으로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자 한다. 사진은 파리의 디즈니 놀이공원의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을 당시 흐린 날씨와 문이 닫혀있던 놀이공원, 그 장소에 서 있는 본인의 느낌과 감정, 분위기들이 작품에 담겨있다.

작품 속 emerald green과 ivory 색의 조합으로 이는 반복되는 작업의 지루함을 탈피하고자 하며 건물의 형태는 색들의 강조 대비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의 공간인 놀이공원의 뒷면엔 다른 이면을 가지고 있는 듯 상상의 여지를 던져주며 당시의 감정에 위안을 받고자 두꺼운 물감의 물성에 집중하며 중간 톤의 사용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담고자 한다. 이러한 내면의 몰입을 통한 작업 행위는 당시 느꼈던 좋지 않은 기억의 감정을 끌어내 치유하며 불안한 자아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러한 치유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에 잘못 엮매인 본인의 불안한 자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앞으로의 본인의 자아 형성에 기대를 가져다준다.



[작품 6] 주변에서 2, acrylic on canvas, 116x91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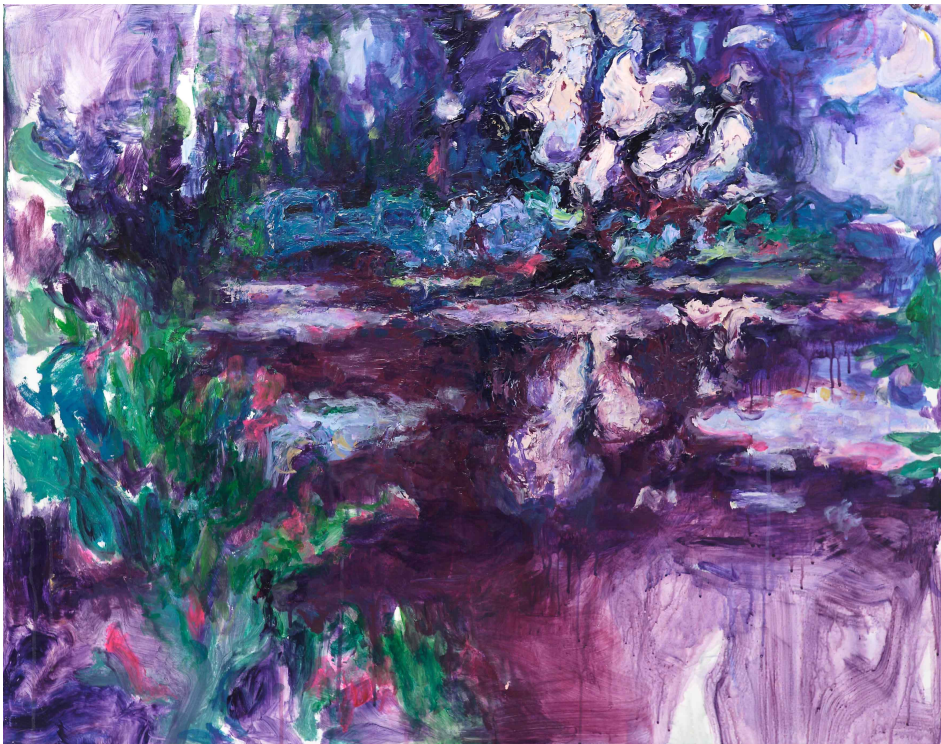
[작품 6]

물감의 두께보다는 그리고 지운 흔적과 물감의 흘러기에 초점을 맞춘 작업으로 화면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완성에 가까울수록 형태의 비움과 채워짐이 적절히 녹아든 작품이다.

세세한 건물의 생략과 violet과 magenta의 사용으로 우울하고 쓸쓸한 도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고 물감의 우연적인 효과와 형태에서 찻잔과 도시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한다.

여행지에서 찍었던 사진을 참고한 이 작업은 그 당시 이방인으로서 느낀 인상을 담는다. 여행지에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차갑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이질감으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작업에서 사람이 머물고 간 흔적으로 쓸쓸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길었던 적응 시간은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던 지난날의 여행과는 달랐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두려움을 위로받고자 몽환적인 색채로 나타내고자 한다.

화면에 여유를 남겨두고 전체를 채우지 않는 표현방식은 질감만은 강조했다. 지난 작업에서 고민되었던 화면구성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감성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작업이다.



[작품 7] 주변에서 3, acrylic on canvas, 91x116cm, 2013

[작품 7]

이 작품은 본인이 모네의 생가를 직접 둘러보고 관찰하면서 보았던 지베르니 정원의 연못을 본인만의 조형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대가의 작업 환경과 공간을 직접 보고 느낀 경험은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창작 욕구를 자극했다.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친구와의 타지에서 둘만의 여행은 낯선 장소에서 오는 솔직함과 거북함이 그대로 서로에게 전달되어 불편한 여행을 이어갔다. 지베르니는 각자 서로의 시간을 가졌던 혼자만의 여행으로 자연으로부터 안정과 위로를 얻었던 장소이다. 그러한 기억은 내면의 안정을 violet에서 찾으며 작업으로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의 연못을 강한 violet으로 나타내며 차분한 분위기를 강조하고자 한다.

형을 무너뜨리고 여백과 물감이 흘러내리는 즉흥적인 효과를 남겨두며 본래의 이미지에서 멀어지고자 한다. 외부의 요인과 감정들이 본인의 작품 세계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내면의 심리 변화에 귀를 기울이며 안정을 찾는 감성과 외부와의 소통의 의지를 담고자 한다. 관람자에게는 본인의 치유의 결과물이 스스로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잠시 삶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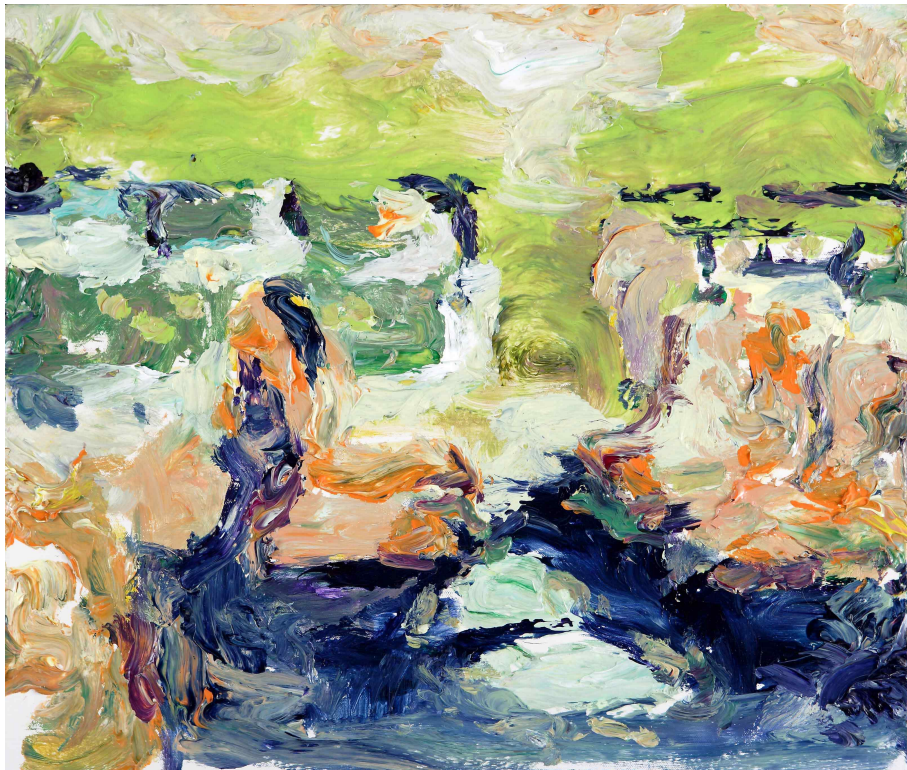
[작품 8] 홀로, acrylic on canvas, 45.5x53cm, 2014

[작품 8]

큰 사이즈 작품 제작에서 처음으로 작은 사이즈의 작업 변화를 시도했던 작품으로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의 이미지를 본인의 조형적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홀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당시 대상을 보았을 때의 감정과 분위기를 생각하며 작업에 임했다. 스케치 과정이 그대로 보이며 물감의 흘림 효과와 여백이 적절히 구성됨을 느낄 수 있다.

큰 작업의 물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듬감과 운동감은 다소 약하지만 물감의 뭉개짐과 터치로 새로운 분위기의 작업으로 작은 사이즈에 압축 할 수 있었다. 큰 작업에서의 거침없는 작업 행위는 작은 사이즈 앞에서 다소 작업을 행함에 머뭇거림으로 나타났지만 전체를 채워야 하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큰 사이즈에서의 작업보다는 붓의 터치와 물감의 물성, 형태의 표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캔버스 안에서 반이나 넘는 여백을 남기는 작업은 화면의 비움이 빈자리가 아닌 채움의 의미를 내포하며 작은 작업을 통해 보여준다. 물감의 물성은 자유로운 터치로 유기적 흐름을 나타내면서 대상의 표현들이 하나하나 살아 있는 듯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한다.



[작품 9] 가는 길, acrylic on canvas, 37.9x45.5cm, 2014



[작품 10] 집으로, acrylic on canvas, 33x53cm, 2014



[작품 11] 언제나 보라, acrylic on canvas, 53x45.5cm, 2014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은 사이즈의 연작으로 스케치 과정의 생략과 큰 고민 없는 붓 터치 작업을 통해 작품 과정에서 느낀 자유로움을 담고자 한 작품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묘사를 시도해보며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단시간으로 압축시켰다. 이전보다 빠른 시간 안의 작업과정은 작품 안에서 역동성과 리듬감으로 나타나며 순간적인 드로잉과 계획적이지 않은 색의 선택은 본인의 작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유추해보며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감이 미처 마르지 않은 표면에 전보다 과한 보조제의 사용으로 두꺼워진 질감은 서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쌓여져 돋보였고 질감을 강조하는 의도가 작은 사이즈에 집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좋았다.

대상의 구체적인 묘사는 의도적으로 화면 안에서 물감의 섞임과 물성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묘사가 아닌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평소 본인의 작품이 큰 사이즈에만 적합하다고 생각함과 달리 작은 크기의 작업을 시도함에 있어서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다.

Ⅲ. 결 론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술은 정신을 담아내는 영역이며 예술가가 표현하는 것은 꼭 그리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자신의 모습이다.³⁷⁾ 예술가는 어떤 것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절실한 그 무엇에 고통받으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만나 감정과 내면세계를 작품에 투영한다. 본인 또한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내면세계에 집중하며 본인만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창조의 원천을 직면하며 바깥 세계로 나가는 출구를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다.

본 논문은 본인의 감정과 내면을 중심으로 몽상을 통해 치유받는 작업세계에 대해 내용적으로 서술하고 조형적으로 분석하며 논의하였다. 혼란스러운 사회 안에서 변화에 재빠르지 못한 본인은 외로움과 불안, 긴장으로 채워진 현재를 살아가며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본인만의 도피처를 찾았다.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지 못하고 묵인하며 피하거나 숨는 것만이 본인의 최선책이었다. 집단 안에서 타인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고 그러한 관계의 원인은 본인의 유년시절에 만들어진 타인에 대한 완벽한 기대로부터 오는 실망감에서 생겨난 불신감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축적된 기억과 감정은 본인의 창작행위로 이어져 상처받은 감정들을 불안정한 자아를 통해 드러내며 몽상을 통해 느낀 감성을 본인이 본 것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본인에게 있어 몽상은 현실을 잊게 해 주는 매개체로 시작하여 몽상에 빠지는 순간 본인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깊숙이 깔려있는 무의식의 자아를 만나게 해주며 불안과 상처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몽상을 통해 내

37) 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방, 2000, pp.17-18

면세계의 대상을 재구성하며 다시 현실에서 재현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몽상은 내면과 이상의 연결고리 역할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본인에게 캔버스 앞이야말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다. 삶을 살아가며 굳혀진 생각과 관념들은 작업 앞에서 다시금 본인을 풀어헤치며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감정을 외부로 표현함과 동시에 해소됨으로써 의식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창작행위 속에서 본인 스스로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였던 내면의 감정들을 직시하며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감정의 원인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의 모호한 감정만을 분출했던 작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거치며 본인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며 진단하는 계기가 되며 본인 스스로 성장하며 내면의 위로와 해소에 만족하게 되었다. 작업의 몰입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의 후련함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예술을 통한 내면 치료로 위축되었던 삶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되찾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감정에 중점을 둔 작업의 형태는 때론 전체적인 작업의 방향과 자세에 매너리즘(Mannerism)³⁸⁾을 가져오는 시간도 있었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작업의 방법과 한정되었던 재료의 표현은 본인의 작업에서 특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작업의 방향의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38) 매너리즘이란 1520년경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주로 회화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를 풍미한 미술 양식으로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이후부터 미술에 관한 문헌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역사적, 비평적 의미가 함축된 복합적인 의미로 문학 비평 및 신학에도 통용되었다. 보통 미술사의 시대 구분에서는 르네상스 미술에서 바로크 미술로 이행하는 사이(1530~1600)에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과도기적인 미술 양식을 말한다. 보통 예술 창작이나 발상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 표현 수단이 고정되고 상식적으로 고착된 경향을 총칭한다. 가령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현상 유지 경향이나 자세를 가리켜 흔히 매너리즘에 빠졌다고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용어사전, 문학비평용어사전 참조

사진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변형시켜 다양한 구도의 변화를 시도해 보며 평소 관심이었던 입체작품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재료의 실험과 관점에 도전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길 기대한다.

색의 섞임과 물감의 두께, 형태의 변형으로 해소할 수 있었던 몰입의 결과물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두꺼운 물감과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로 보일 것이고 다른 이에게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내면의 숨어있던 감정을 자극하며 다가갈 것이다. 안정감을 느낀 violet 색에서도 혼란스럽고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각자 삶의 이해에 따른 상대적 관점은 본인이 제시한 결과물이 모두에게 느낀 것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제시한 창작행위를 통한 자기 치유는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개인적으로 본인과 같이 외부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와 함께 작품에 대해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 본인의 내적 치유의 결과물이 그들에게 위로의 이미지로 다가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내적 감성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길 바라며 그 결과 개인과 사회와의 소통 속에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본 논문으로 관람자들이 본인이 제시한 결과물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바라보며 잠시 머물고자 하는 삶의 여유를 가지길 기대하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흐름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 간의 진정한 소통을 바란다. 또한 본인의 작업에 있어 감정의 치유적 회화 연구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다양성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도 판



[도판 1] 뭉크(Edvard Munch), 아픈 아이, The Sick Child,
oil on canvas, 120x119cm, 1885~1886



[도판 2]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Light of Iris,
oil on canvas, 91.4x75.9cm, 1924



[도판 3]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현명한 해리,
oil on canvas, 27.5x22cm, 1956



[도판 4] 장 뒤뷔페(Jean Dubuffet), 금반지, La bague d'or,
oil on canvas, 100x81cm, 1958

참 고 문 헌

- 고영건·김진영, 『그림으로 이해하는 심리학』, 개마고원, 2013
- 김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문화사, 2006
-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 이위환 · 김용주, 『현대사회와 인간관계론』, 공동체, 2009
- 이홍균, 『소외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5
-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미술』, 일지사, 1990
- 정여주,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2003
- 조이한, 『위험한 그림의 미술사』, 웅진닷컴, 2002
- 최승희 · 김수옥, 『인간관계를 위한 심리학』, 박영사, 2013
- 최은영·공마리아, 『미술심리치료』, 학지사, 2008
-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슐라르』, 살림출판사, 2005
-
- Guila Ballas, 『현대미술과 색채』, 궁리출판사, 2002
- Jon Allen, 『트라우마의 치유』, 학지사, 2010
- Margarete Bruns, 『색의 수수께끼』, 세종연구원, 1999
- Matthias Arnold, 『몽크』, 한길사, 1997
- Nikos Kazantzakis,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9
- Rollo May,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0
- Wassily Kandinsky,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방, 2000

강소영·김도식, 『동·서양의 관점에서 본 비움에 관한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2014

문미원, 『현대미술을 통한 불안 심리표현의 조형성연구-표현주의 회화중심

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술이야기』, 경향신문, 2012

<http://monthlyart.com/>

ABSTRACT

A Study on the Pictorial Expression of Self-Healing through Daydreaming

- Focusing on my own artworks -

Han, Hye Min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researched and depicted the contents and expression forms the artworks, based on the researcher's own artworks that were put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for the master's degree held on March of 2014, among the artworks that were worked on from 2011 to 2014.

Rapid urbanization and commercial capitalism of the present day caused drastic individualism and mammonism. Under such circumstances, people who feel doubts about life's meaninglessness and dryness of life and shudder are encountered occasionally. Eventful issues that are experienced while living with numerous external stimulations that continue ceaselessly do not naturally get resolved at some point. Sentiments that are felt from the society due to anxiety, alienation and futility are left as individual homeworks that must be solved by oneself,

and they bring about serious confusion of identity. I also experienced enormous imbalance of sentiments due to several external stimulations, and they led to insecurity, distrust and the wound that cannot be cleansed. Instead of relying on someone, I wanted to grasp the method of comforting oneself and resolving issues alone, and the 'daydreaming' behavior of imagining novelty and difference was the solution that I discovered.

An artist looks around the surroundings in life that the artist is in, explores the inner self, and then expresses by including feelings. Matters are resolved in one's own unique ways with the expressions of human's internal life, instead of describing external existence. I wanted to focus on the inner self that is encountered through artistic activities, and diversely express the forms of sentiments that are realized within it.

In this study, I observed and analyzed the causes of bringing about the sentiments of anxiety, alienation and futility from the social and individual aspects, and suggested in detail the influence and possibilities of artistic behaviors through daydreaming on inner healing. Matters of interest and work process were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art therapy, and the formative composition method was analyzed and depicted in detail, in the order of properties and colors of paints, a sense of rhythm, distortion and reduction of an object, and shapes of emptiness and filling.

Ultimatel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healing of the scars and sentiments that are created by the society and others while living in the present age, by using one's own formative language through the creative

process of daydreaming. The most common thing is the most personal thing? Through this thesis, I was able to travel the deep valley of sentiments, and simultaneously obtain the insight of looking around the surroundings and command a broad perspective by actively suggesting the possibilities possessed by self-discovery and healing through art. I wish to involuntarily pat us, who are concerned about individual issues, and sometimes look at each other and have conversations.